

OPEC, 이라크 전쟁 발발시의 생산 여력 보유 주장

추가 생산능력은 300만 배럴 내외

석유수출국기구 OPEC는 최근의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출 부족을 보충하고도 일일 250만~300만 배럴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OPEC 의장 압둘라 알 아티야(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카타르 에너지/산업 장관이 2월 25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OPEC의 추가 생산력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해도 이라크의 석유수출 중단에 의한 세계석유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라크의 석유수출 동향을 보면, 이라크의 석유부 차관인 후세인 알 하디티(Hussein al-Hadithy)가 2003년 2월 3일 밝힌 바에 의하면 1월 산유량은 일일 300만 배럴에 수출은 일일 170만~200만 배럴 수준이었는데 2월 9일~15일에는 수출이 일일 160만 배럴로 줄었다. 이는 2002년 12월 평균 일일 220만 배럴 수출에 비해 27%나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이라크는 유엔의 통제를 받는 공식적인 수출 외에도 트럭과 소형 유조선 등을 통한 원유와 정유제품 밀수출이 일일 20만~40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이 낮은 이라크의 밀수 석유 혜택을 보고 있는 요르단, 시리아 등은 전쟁에 의한 이라크 석유 수출 중단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OPEC와 비OPEC의 석유 생산 비교

단위: 천 배럴/일, %

| | 2001년 생산(비중) | | 2001년 수출(비중) | |
|--------|--------------|--------|--------------|-------|
| | 생산량 | 비중 | 수출량 | 비중 |
| OPEC | 26,873 | 41.0 | 19,881 | 53.3 |
| (이라크) | (2,594) | (4.0) | (1,710) | (4.6) |
| 비 OPEC | 38,626 | 59.0 | 17,452 | 46.7 |
| (러시아) | (8,070) | (12.3) | (3,344) | (9.0) |
| 세계 | 65,499 | 100.0 | 37,333 | 100.0 |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1.

OPEC의 2사분기 산유량 쿼터는?

한편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파업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월 산유량 쿼터를 일일 150만 배럴 늘려 일일 2,450만 배럴로 정했던 OPEC는 3월 11일 2사분기 산유량 쿼터를 결정하는 회의를 가진다. 과거에 2000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1월 28일까지 적용되었던 쿼터는 2,670만 배럴에 이르렀으나, 연이은 유가 하락으로 계속 감축되어 2002년에는 2,170만 배럴로까지 줄었다가 2003년 1월에는 2,300만 배럴로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불확실한 운명과 계절적인 석유수요 감소로 석유 가격의 움직임도 전망이 당분간 불확실하여, 이 회의에서 산유량 쿼터를 늘릴 가능성은 있으나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전망

이와 함께 2004년의 전망을 보면, 북반구의 동절기가 끝나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하절기를 맞는 2사분기에 세계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석유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등 비 OPEC 산유국들이 시장점유율을 올리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OPEC가 산유량 감축을 통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PEC가 유지하려고 하는 배럴당 \$22~\$28의 유가 변동범위(바스켓 가격 기준)는 하한인 \$22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유가는 \$15~\$16 수준 아래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석유가격 하락은 비산유국들에게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산유국들, 특히 중동국가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선임연구원 강준수
jkang@koreaexim.go.kr